

매일일보

김해율하도서관, 'AI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특강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김해율하도서관(관장 차미옥)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과학분야의 저

명한 작가들을 초청해 'AI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특강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율하도서관은 올 6월 1일 개관, 김해의 6번째 시립도서관이자 단일 도서관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개관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동양고전 특강에 이어 야심차게 준비한 인문학 강좌로 3번째 특강이다.

강좌는 알파고와 인공지능이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AI 시대에 우리아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며, 2명의 과학분야 전문가가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9월 8일 오후 1시에는 △곽재식 작가가 '인공지능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란 주제로 SF 작품 속에 그려진 인공지능과 미래를 기반으로 SF는 어떻게 가장 현실적인 장르가 되었는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재식 작가는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토끼의 아리아' 등의 글쓰기 전문가이자 SF 저자이다.

이어 9월 16일 오후 2시에는 '로봇시대, 인간의 일', '당신을 공유하겠습니까?' 등의 저자인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을 초청하여 최신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그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특강의 접수는 오는 8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해시, AI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김해=경남뉴스투데이) 김해율하도서관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과학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을 초청

해 'AI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특강을 운영한다.

김해율하도서관은 올해 6월 1일 개관했고, 김해의 6번째 시립도서관이자 단일 도서관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개관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동양고전 특강에 이어 약심차게 준비한 인문학 강좌로 3번째 특강이다.

강좌는 알파고와 인공지능이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AI 시대에 우리아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며, 2명의 과학분야 전문가가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9월 8일 오후1시에는 곽재식 작가가 '인공지능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란 주제로 SF 작품 속에 그려진 인공지능과 미래를 기반으로 SF는 어떻게 가장 현실적인 장르가 되었는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재식 작가는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토끼의 아리아' 등의 글쓰기 전문가이자 SF 저자이다.

다음으로 9월 16일 오후 2시에는 '로봇시대, 인간의 일', '당신을 공유하겠습니까?' 등의 저자인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을 초청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그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특강의 접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330-7161) 및 김해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순 기자

김해율하도서관, 개관기념 인문학 특강

인문학 3번째 강좌 “AI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김해율하도서관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과학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을 초청해 ‘AI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특강을 운영한다.

김해율하도서관은 올해 6월 1일 개관한 김해의 6번째 시립도서관이자 단일 도서관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특강은 개관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동양고전 특강에 이어 야심차게 준비한 인문학 강좌로 3번째 특강이다. 강좌는 알파고와 인공지능이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AI 시대에 우리아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2명의 과학분야 전문가가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9월 8일 오후1시에는 곽재식 작가가 ‘인공지능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란 주제로 SF 작품 속에 그려진 인공지능과 미래를 기반으로 SF는 어떻게 가장 현실적인 장르가 되었는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곽재식 작가는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토끼의 아리아’ 등의 글쓰기 전문가이자 SF 저자이다. 이어 9월 16일 오후 2시에는 ‘로봇시대, 인간의 일’, ‘당신을 공유하겠습니까?’ 등의 저자인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을 초청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그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된다. 특강 접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해=이진우 기자

국제뉴스

김해율하도서관, 'AI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특강



(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율하도서관은 평소에 접하기 힘든 과학분야의 저명한 작가

들을 초청해 'AI 시대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특강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율하도서관은 올해 6월 1일 개관했고, 김해의 6번째 시립도서관이자 단일 도서관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개관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동양고전 특강에 이어 야심차게 준비한 인문학 강좌로 3번째 특강이다.

강좌는 알파고와 인공지능이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AI 시대에 우리아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며, 2명의 과학분야 전문가가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9월 8일 오후1시에는 곽재식 작가가 '인공지능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란 주제로 SF 작품 속에 그려진 인공지능과 미래를 기반으로 SF는 어떻게 가장 현실적인 장르가 되었는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재식 작가는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토끼의 아리아'등의 글쓰기 전문가이자 SF 저자이다.

다음으로 9월 16일 오후 2시에는 '로봇시대, 인간의 일', '당신을 공유하겠습니까?'등의 저자인 구본권 작가와 디지털 연구소장을 초청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 현황과 그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특강의 접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김해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청소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및 김해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